

## 노력 믿고 꿈을 향해 직진, 수능 성적 뒤집은 실기의 힘



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  
실기전형



황재연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2학년  
(서울 은광여고 졸업)

고교 시절 목표는 최상위권 미대 입학이었다. '내 사전에 재수는 없다'를 되뇌며 어느 전형에 있을지 모를 합격의 문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고3까지 내신과 교내 활동, 수능과 실기를 두루 챙겨, 전형 선택의 폭을 넓혔다. 수시 비실기전형으로 홍익대 미대에 지원했지만 최종 관문인 면접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정시에서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수능 성적에 눈물을 흘렸지만, 평소 실력을 믿고 고려대 미대에 소신 지원했다. 결과는 합격! 치열한 미대 입시의 당락을 결정짓는 실기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입시 준비에 지칠 때면 고려대 응원가를 들으며 힘을 냈다는 황재연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mailto:grapin@naeil.com)


### Q. 정시 실기전형이 주력 전형이었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정시를 목표로 한 건 아니었어요. 최상위권 미대 진학이 목표였죠. 수시에서는 홍익대 비실기전형을 준비했고, 정시로는 고려대 실기전형 합격을 목표로 투트랙 전략을 세웠어요. 고3 때까지 내신과 수능, 실기 준비, 다양한 미술 활동까지,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매달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열정적이었죠. 내신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9월 모의고사까지 주요 과목 등급도 잘 나온 편이었어요. 하지만 수능

당일 긴장한 탓에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성적표를 손에 쥐게 됐죠. 밤새 평평 울고 다음 날부터 실기에 집중했어요. 결국 8.37:1의 경쟁률을 뚫고 목표하던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 Q. 실기 준비는 어떻게 했나?

중학교 때 예고 입시를 준비했어요. 드로잉의 기본을 배우고 기초 실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됐죠. 중학교 때는 수채화로 다채로운 색감을 연출하는 게 재밌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연필 소묘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됐어요. 고려대 실기고사에는 세 가지 제시물의 조형적 특성을 관찰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연필 소묘가

 2022학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대학에 정시전형과 추천형 교과전형이 급증하면서 대입 지형도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정시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형별·대학별 특징과 선배들의 합격 비결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_편집자

## 실기 대비 전략

TIP

### “긴장감 더는 나만의 루틴 지키기”

#### 시간 배분

실전에서 떨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하려면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해야 한다. 시간 관리를 못해 작품을 미처 완성하지 못하거나, 실력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문제만 봐도 머릿속이 새하얘지지만, 연습을 계속하다보면 자신에게 꼭 맞는 루틴을 찾기 마련이다. 아이디어 스케치는 10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4절지에 구도를 잡을 때는 50분 안에 전체 스케치를 마쳤다. 나머지 시간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작품을 풍성하게 연출하는 것에 집중했다. 평소 루틴대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 “연습한 시간만큼 실력 늘어”

#### 자료 활용

좋은 그림을 많이 보고, 실제로 많이 그려봐야 실력이 는다. 주변에 있는 사물을 관찰해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수상 작품이나 합격 재현작 등을 자세히 관찰해 최대한 똑같이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미지 앱인 ‘핀터레스트’에 올라온 입시 자료나 그림 자료를 활용해보자. 스스로 자료를 찾아 표현하고 싶은 질감이나 구도를 적극적으로 연습해 보는 과정에서 얻는 것도 많다. 개체를 주의 깊게 살펴 물체의 특징을 고려한 구도를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성력과 표현력이 늘어난다. 내 스타일에 맞게 그림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응용력을 기를 수도 있다.

쉬워 보여도 실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이라 다양한 스타일의 소묘 방식을 파악해, 내 것으로 재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선을 쌓고 톤을 풍부하게 쓰면서 재료의 질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연습도 꾸준히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참신한 발상과 공간감이 느껴지는 구도를 잡는 건데요. 섬세한 묘사도 필요하지만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건 창의적 사고라서 구도에 대한 고민을 끝까지 가장 많이 했어요.

### Q. 실기와 공부는 어떻게 병행했나?

실기 준비를 하며 내신과 교내 미술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마지막에 수능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신 기간에는 보름 전부터 실기를 중단하고 과목별로 공부할 양을 쪼개 계획표대로 실천해 나갔는데요. 교과 성적은 2등급 중반으로 마무리했어요. 틈틈이 수능 준비도 했어요. <한국사>는 수능 직전에 시대별로 정리한 게 효과

가 있었는데 1등급이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항상 1등급이 나왔던 <생활과 윤리>와 <사회 문화>는 각각 2, 3등급으로 떨어졌고요. 평소에 잘했더라도 마지막까지 개념 정리와 오답노트를 통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 Q.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조언이 있다면?

꼭 가고 싶은 대학과 희망 학과가 있다면 지난해 경쟁률과 합격선이 어땠는지, 어떤 유형의 실기 시험을 보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내 손으로 정보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기나 성적이 내 맘처럼 오르지 않아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도 묵묵히 그날 할 일을 하세요. 슬럼프는 지나가고 노력한 시간만큼 실력은 쌓이기 마련이니까요. 마지막에 웃는 그날까지 건투를 빕니다. @